

17/05/07(주) 주일예배 / 제목 :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엡 6:4) p. 316

(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은 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민족을 들라면 누구나 유대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 수상자의 22.3%를 유대인이 차지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인의 교육열도 자타가 인정할 만큼 보통을 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인의 교육열을 자주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녀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식 습득이라는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소위 일류 학교에 진학하고, 실력을 갖추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지만, 교양이라든지 예의범절, 인격적인 성숙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양이 없고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오늘날 교육이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치중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예의와 책임감 등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자녀 교육을 진단해 보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가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고통 받는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데, 자녀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가며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은 이유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망치려고 기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

는 일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노엽도록 책망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듣는 자녀들이 노여워하도록 책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양육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앙교육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는 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년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에 입은 마음의 상처가 자녀들의 일생에 걸쳐서 삶의 태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양육 중 아이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브레인월드’(brainworld)가 0세~19세의 자녀를 둔 부모 1,774명에게 ‘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위로 68%가 ‘감정조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위로 43%가 ‘자녀의 성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바라는 엄마 아빠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엄마에 대한 질문에는 1위가 ‘감정조절 잘하는 엄마’이고, 아빠에 대한 질문에는 1위가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 중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감정조절입니다.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조절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너무도 만만하고 또한 쉽게 여겨지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나무라고 벌을 준다면 내심 반발하고 마음에 담을 쌓게 됩니다.

자녀를 책망하거나 벌을 줄 때 자녀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부모의 책망과 벌이 노엽지 않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징계로서 사랑의 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선 감정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조절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면 반드시 아이에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납득할 수 없게 화를 낼 경우, 부모가 자기의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했을 경우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지금 감정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잘못할 때 사과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의 모순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부모의 이기심과

허물을 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라고 말할수록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부모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자기들에게만 싸우지 말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매일 TV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들만 공부하라고 하니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에게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마음껏 화도 내고 말도 막 하면서 자기들은 화내지 말고 말조심하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큼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직접 보고 배우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은 대개 아버지 같은 남자를 동경하게 되고, 아들들은 어머니 같은 여자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일들을 보여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므로, 자식들이 그만 부모에 대하여 존경심이 사라지고, 부모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신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계산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유명한 학교에 다니고 성적이 상위권이면 좋아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대만큼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엉망인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그런 성적표 때문에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부모가 창피해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뒤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뒤 떨어진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에 죽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를 보고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 여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계산으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들은 성경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훈육’(discipline)과 ‘훈련’(training)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 13:24을 보면 (잠 13: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할 때 훈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훈육을 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대부분 부모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니다. 그 때 훈육을 하면 자칫 감정이 담길 수 있습니다. 화풀이로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납니다. 둘째, 모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모욕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또 손 지검으로 모욕합니다. 머리를 때립니다. 뺨을 때립니다. 결국 아이들이 자존심을 다칩니다. 그러면 그 훈육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또 어떤 때는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훈육이 그때그때 다르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매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훈육이 ‘사랑의 훈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훈육할 때 꼭 명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 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 분명히 자녀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훈육을 하고, 훈육 후에는 자녀를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벌을 준 다음에는 안아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훈계하라는 말은 원어로 ‘누데시아’(Nouthesia)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로 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신앙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창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뜻밖의 명을 받았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일 길을 아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두 종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또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제물 문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고 제물로 제단 위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솟양을 준비해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깊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깊은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훈계가 담긴 신앙적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주님께서서는 부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실패합니다. 대화의 문이 닫히고 피차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 공감적 대화를 시도하라. 우리가 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대화가 지시적 대화요 명령적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방법을 공감적 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랬겠구나...”하며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라. 자녀와 대화할 때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겠니’하는 식의 긍정적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축복의 대화를 시도하라.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아빠 엄마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야’...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로 넘겨줄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영향보다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느냐? 에 따라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맨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 6:6~7)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고 했으며,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지킬 수가 있으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교육의 최상의 방법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자녀들을 가장 잘 길러낸 위대한 3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미국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키스,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가난한 가정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목사의 어머니이신 수산나는 19남매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자녀교육법에 보면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먼저 주의 기도를 가르쳤고 또한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쓰도록 하였으며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실천하고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과잉보호를 해서 자녀를 이기적이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보니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어야만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엄마가 다 도와줘야 하는 마마보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것이 소중한면 남의 것도 소중한을 가르치고,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어야 한다는 'WIN-WIN'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주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길러져야 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시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요약정리** /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